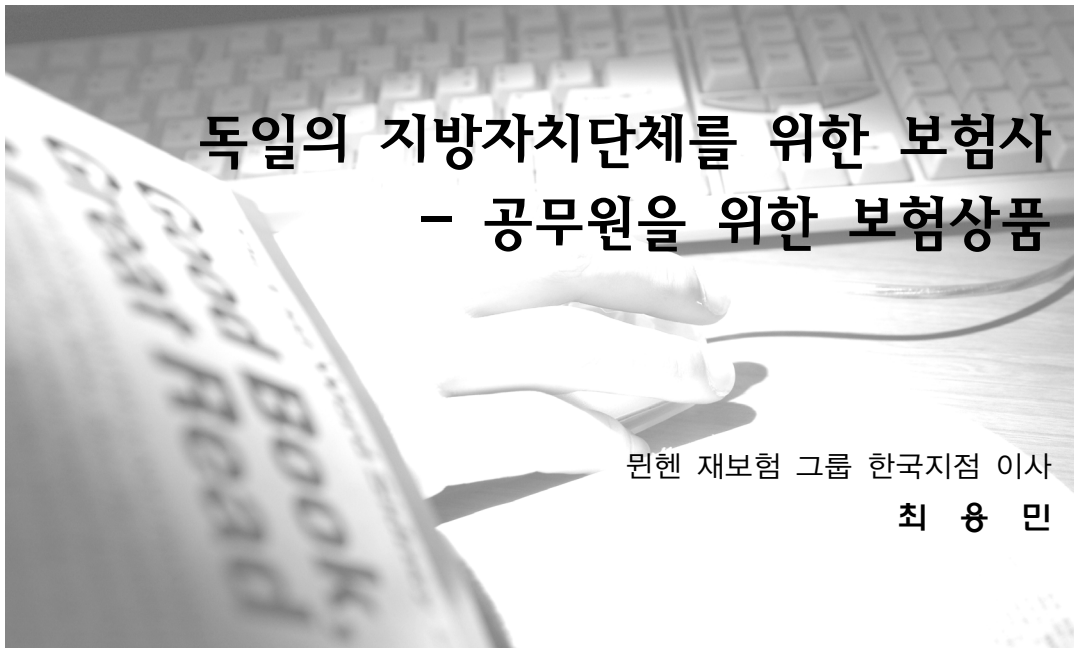




독일의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보험사 - 공무원을 위한 보험상품

뮌헨 재보험 그룹 한국지점 이사
최 용 민

지난 7월호 이후 독일의 독특한 보험회사 형태로 지방 정부의 위험을 주로 책임지고 있는 지자체 보험사 (KommunalVersicherer - KV)와 공영보험사 (Oeffentlich Rechtliche Versicherer-ORV)에 대해 알아보고 ORV의 대표적인 회사로서 바이에른주에 위치한 Versicherungskammer Bayern (VKB - 바이에른 지자체 보험사)의 실적현황, 영업환경 및 성장배경에 대해 기술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공무원과 지방정부의 위험을 주로 책임지고 있는 기관의 성격상 배타적으로 시판, 운영되고 있는 보험상품인 “공무원을 위한 여행자 보험”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1. 시작하며

현재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여행자 보험, 혹은 여행자를 위한 상해보험은 개인

의 여행일정에 따른 필요에 의해 관련 여행사 (Travel Agency)의 주선을 통하거나 수요자가 직접 보험사를 접촉하여 구매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왔다. 때문에 여행사를 통해 단체관광에 나서는 경우에는 패키지 형태의 관광상품내역에 여행자보험이 포함 되어있어 실제 관광객의 입장에서는 보험상품의 담보내용 및 보험료 구성에 대해서 별도로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해서 보험 상품의 구매행위 자체가 여행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개인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없어 보험 가입 자체가 자칫 요식행위에 머무를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때문에 1,200억 여원에 달하는 시장 보험료 규모와 40%~50% 내외의 양호한 손해를 실적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도 손해보험 회사의 영업 수익구조가 개선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첫째, 공급 주선자인 여행사 및 대리점 위주의 판매채널로 인하여 과도한 사업비가 계상되고 그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들 수 있으며 둘째로는 보험 수요자, 즉 여행자의 보험상품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보험 판매가 실질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자는 국내의 여행자 보험은 지금까지의 공급자 위주의 판매 방식에서 벗어나 고객 분할 (Customer Segmentation)을 통해 수요자 군을 분석하고 그들의 특수한 상황과 필요성을 반영한 다양한 상품의 구성을 통하여 내실 있는 성장을 함께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이후에 다루고자 하는 공무원이나 교수/교직원, 의사 혹은 그 밖에 전문직 종사자들과 같이 보험 수요자 그룹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보험 담보 플랜을 구성한다면 보다 실익 있는 상품으로 구매력을 자극할 것으로 본다.

이번에 소개하고자 하는 (공무원을 위한) 여행자 보험은 현재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내에서 주로 판매되고 있는 상품으로 위에서 제안한대로 공무원이라고 하는 특수한 고객 분할을 통해 그들만이 갖고 있는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다.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손해배상 공제사업을 하고 있는 지방재정공제회가 도입해 볼 만한 상품으로 가입형태부터 담보내용까지 심도 있게 다루고자 한다.



2. 공무원을 위한 여행자 (상해) 보험

(CorporateTravelInsuranceforGovernmentOfficer, 이하 CTI)

1) 상품 개발 배경

CTI는 원래 독일 보험 시장내에서 여행자보험만을 취급하는 단종 보험회사인 Europaeische Reiseversicherung AG (ERV) 가 개발한 상품으로 현재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ORV (공영 보험사)에서 채택 판매하고 있다.

2) 상품 특성

가장 주목할 만한 상품의 특성으로서 첫째, 포괄적인 가입방안을 들 수 있다. 즉, 일반적으로 여행자의 신상과 여행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가입절차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험가입자가 되고 그에 속한 공무원들이 피보험자를 이루는 것으로 공무원 개개인의 신상정보를 묻지 않는 특성이 있다. 즉 보험(공제) 사고 당시 해당 지자체의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면 보상이 되는 형태로 가입절차가 간단하다. 따라서 지역 공제보험사 입장에서는 일률적인 가입 플랜에 해당하는 보험료 (공제료)에 전체 공무원 수를 곱한 금액을 보험료 (공제료)로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둘째, 기존 일반인을 상대로 한 보험상품보다 광범위한 담보기간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여행을 목적으로 교통용구에 탑승한 순간부터 담보가 개시되는 상품에 비해 CTI는 공무원이 거주지역 (집, 임시 거처 또는 통상의 근무처) 을 떠나는 시점에 담보가 개시되어 상기 지역으로의 귀소 시점에 종료된다는 점에서 보다 담보기간이 길다 하겠다.¹⁾

마지막으로 또 다른 특성은 보험가입기간과 보상기간을 별도로 설정함으로써 통상적으로 이미 정해진 여행기간에만 위험담보가 이루어지는 관례를 벗어나 보험가입기간 1년 동안에 별도로 설정된 보상기간 30일을 기준으로 위험담보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1) 단, 기간 중에 업무관련 출장이 귀소 시점전에 중단되는 경우 담보기간은 그에 따라 종료된다.

즉, 기존 상품과 CTI를 비교해보면,

(기간 1년)



1년 동안에 4회 여행을 한다고 가정할 때, 각 여행기간별 별도로 보험가입 필요, 총 4회에 걸쳐 가입절차 필요



총 여행기간 16일이 보상기간 한도 30일 내에서 자동 담보됨으로써 별도의 가입절차가 불필요

3) 일반 사항

a. 보험계약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지역 모든 공무원을 대신해서 보험가입을 대신한다. 즉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보험 계약자가 되며 종로구 소속 모든 공무원이 피보험자의 지위를 얻게 된다. 별도의 명시가 없으면 보험계약은 해당 지자체의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한 효력을 갖는다.

b. 보험 담보기간 (시기 와 중기):

상기한 바와 같이 보험효력은 피보험자인 공무원이 출장 및 여행을 목적으로 거주지 (임시 거처 및 근무처 포함)를 출발함과 동시에 개시되며 원래의 지역으로 귀소함으로써 종료된다.²⁾

c. 출장 (Business Trip) 의 정의:

본 보험/공제에서 출장이라 함은 공무를 위해 통상 근무지로부터 50Km 이상 벗어난 지역으로의 이동을 의미한다. 단 공무원 중 트럭이나 버스 기사와 같이 통상 업무가 이동과 관련된 것인 경우는 제외한다.

2) 담보에서 제외되는 출장, 여행 및 공무 (별도의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한함):

- 국내에서의 통상적인 출, 퇴근 구간 (Travel between the residence and the regular workplace in the country of domicile and vice versa)
- 건축관련 업무 공무원의 현장 내 업무 중 사고
- 공무원의 휴가지에서의 일시 공무 중 사고



4) 보험 담보

CTI증권상에서 담보되는 위험이나 비용은 다음과 같이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특징을 안고 있다. 자세한 담보내용은 별도로 다음 장에서 기술하고자 한다

-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상해 치료 비용 담보 (Illness and Accident Injuries)
- 출장 중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 장애 담보 (Disability and Death Compensation)
- 출장의 중단으로 인한 비용 손실 담보 (Interruption of Travel)
- 사고 후 출장공무원의 교체에 따른 비용 손실 담보 (Journey of Replacement Person)
- 정신장애 치료비용 담보 (Crisis Therapy)
- 공무원이 출장 중 납치당한 경우 그에 따른 정신적 위로금 담보 (Kidnapping Compensation)
- 출장 수하물관련 비용 담보 (Luggage Coverage)
- 출장 중의 지연에 따른 제반 비용 담보 (Delay Coverage)
- 출장 중 대인 배상책임 담보 (Personal Liability Coverage)

5) 각 담보 별 보상내역

- a. 출장 중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상해 치료비용 담보 (Illness and Accident during the business trip)

	보상관련 내용	비 고
담보 내용	• 의학적인 필요에 의해 합리적으로 지출된 치료 비용에 대해 보상 • 전 이미 뚜렷한 병세가 있었던 경우에는 보상되지 않음 (단, 출장 중 병세가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급격히 악화된 경우는 제외) • 질병의 경우, 치료 개시 후 1년간 보상하며 사고로 인한 상해는 사고일자 후 3년간 보상	
보상 한도	• EUR 500,000.- 관행상 합리적으로 지출된 비용에 한해 관련 제반 비용 포함	
면책 사항	• 해외 출장중 Sports 활동 중 입은 상해 -경주용 자동차 운전, 스쿠버 다이빙 (수심 30 미터 이상), 격투기, 산악 등반, 격오지 탐험, 기타 전문가 수준의 스포츠 활동 및 훈련 과정 포함	

b. 출장 중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 장애 담보³⁾(Disability and Death Compensation)

	보상관련 내용	비 고
담보 내용	• 국내, 외 출장 중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영구 후유 장애 발생시 지급 • 후유 장애의 경우 장애 등급별 판단 기준 설정 (국내와 동일) • 후유 장애 보험금 지급은 사고 후 12개월이 경과한 후 3년 안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 • 사망 보험금은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3년 안에 사망에 이른 경우에 한정 (단, 후유 장애와 사망이 동일한 사고로 발생한 경우 사망보험금은 후유 장애로 기 지급된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함)	
보상 한도	• 사망: EUR 10,000.-, 후유 장애: EUR 30,000.-	
면책 사항	• (상기 상해 치료 비용에서 언급한 면책사항 외에) 상해 사고가 보험계약자의 알코올 및 중독성 물질이나 최면제, 마약물질 또는 약물남용에 기인한 경우 • 질병, 신체적 기능 상실, 정신 질환 자체 및 이에 따른 상해 (단, 공무원의 출장이 개시 되기 전 발병한 경우에 한함) • 자살기도로 발생한 상해 • 만성 통증, 근육통, 류마티스성 섬유조직염 다음의 경우 “사고” 로 인정하지 않음 •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상해 • 본 보험에서 보상하는 사고가 아닌 것으로서 약물의 복용, 외과 수술, 의료 검사 중에 발생한 상해 • 자살 혹은 자살 기도로 발생한 상해 • 의사의 견해상 상해자체가 사고가 아닌 질병, 신체적 결함 또는 병리학적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단, 기존의 신체적인 장애로 사고로 인한 상해가 가중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신체 장애와 상관없이 초래된 상해결과에 대해서만 보상함	

3) 국내 여행자보험과 비교 시 보상한도가 극히 낮은 이유는 첫째, 일반적으로 사망이나 후유장애는 타 보험에서 중복되어 가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따라서 국내 여행자보험의 경우에 사고시 중복보험적용을 받을 경우 실 지급액은 보험증권상에 명시된 한도액을 밑돌 것으로 예상함. 둘째, 문화적인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유럽의 경우 사고로 인한 치료비의 지출에 보다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에 반해 국내 보험소비자는 전반적으로 사망시의 보험금에 판단의 기준을 둠

c. 출장의 중단으로 인한 비용 손실 담보 (Interruption of Travel)

	보상관련 내용	비 고
담보 내용	-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출장을 완수하지 못한 경우 그에 따라 지출된 합리적인 비용을 보상함⁴⁾ - 친척의 치명적 중상이나 사망, 국내에 거주하는 동료 혹은 출장에 동행한 동료의 사망시 - 출장 공무원의 거주지 혹은 근무지에 발생한 심각한 사고나 강도피해로 인해 즉시 귀국이 요구되는 경우⁵⁾ - 출장지 현지에 급격하고도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시 - 국외 출장의 경우 귀국에 따른 추가발생비용을 보상하며 국내 출장의 경우 자신의 승용구 이용시 Km당 EUR 0.14를 보상함 - 조기 귀국 혹은 귀소로 인하여 사용하지 않은 기타 출장 비용에 대해서도 보상함 (예, 호텔 취소비용 등)	
보상 한도	- 비상상황에 따른 제반 귀국비용: 합리적인 지출액 실비 - 사용하지 않은 호텔 및 교통비: EUR 4,000.-	
면책 사항	타 법령이나 국제 협약에 의해 이미 보상이 이루어질 경우 또는 타 보험/공제에서 보상되는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음	

d. 사고 후 출장공무원의 교체에 따른 비용 담보 (Journey of replacement officer/New journey/Repayment of unused travel expenses)

	보상관련 내용	비 고
담보 내용	-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출장을 완수하지 못하고 <u>타공무원으로의교체</u>가 불가피한 경우 그에 따라 지출된 합리적인 비용을 보상함 - 출장중의 사고 후 담당 진료의사의 견해상 더 이상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 친척의 치명적 중상이나 사망, 국내에 거주하는 동료 혹은 출장에 동행한 동료의 사망시	

4) 계약자는 출장 중지의 사유에 대해 서면으로 입증할 의무가 있으며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 역시 영수증 제출을 전제로 함

5) 심각한 사고나 강도피해의 의미: 예를 들어 거주지 혹은 근무지의 상당 부분 혹은 전부가 화재나 강도/절도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를 말함

	▷ 출장 공무원의 거주지 혹은 근무지에 발생한 심각한 사고나 강도피해로 인해 즉시 귀국이 요구되는 경우 • 교체 공무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통상의 교통비를 보상함 • 부득이 출장을 중지하고 귀국한 공무원 자신이 업무를 다시 수행해야 할 경우에도 합리적으로 지출된 한도 내에서 보상함 (단, 이 경우 사고 후 3개월 이내 재출국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함) • 만일 교체 공무원의 출국이나 기존 공무원의 재출국도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미사용 교통비만이 보상됨	
보상 한도	• 미사용 교통비: EUR 4,000.-	
면책 사항	• 타 보험/공제에서 보상되는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음	

e. 정신장애 치료 비용 담보 (Crisis Therapy)

	보상관련 내용	비 고
담보 내용	• 출장 중 아래와 같은 사고를 목격하거나, 직접 경험함으로써 입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장애에 대해 정신과 상담 치료비를 보상함 ▷ 약탈, 가해 위협 또는 폭행 ▷ 사고로 인한 증상 ▷ 기타 충격적인 사건 (예, 화재, 강도, 폭발, 교통사고, 자연재해, 테러 위협 등) • 공무원 한 사람당 / 한 사고당 전문 심리 상담가를 통한 상담 치료 10회를 지원하며 만일 공무원이 출장중 위와 같은 상황으로 사망에 이르게 될 경우 그 가족에 대해 동일한 상담 치료 지원. 또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후유장애 비율이 30%에 이를 경우에도 동일한 상담 치료 지원	
보상 한도	• EUR 2,500.-	
계약자 준수사항	• 전문 심리 상담가를 통한 치료만이 인정되며 사고 발생 후 혹은 후유 장애 진단 후 12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함 • 약탈이나 가해 위협 또는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경찰서 신고서류 및 조사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함 • 상담 치료관련 영수증 첨부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 거절 될 수 있음	

f. 공무원이 출장 중 납치당한 경우 그에 따른 정신적 위로금 담보 (Kidnapping Compensation)

	보상관련 내용	비 고
담보 내용	- 출장 중인 공무원이 납치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해 침해된 자유에 대해 최대 90일까지 위로금을 산정 보상함 - 해외에서 납치된 경우 가까운 친척의 현지 방문을 위해 들어간 비용을 보상함	
보상 한도	24시간 기준 EUR 250.- 최대 EUR 22,500.-을 한도로 보상 - 친척 방문비용은 최대 EUR 10,000.-을 한도로 보상	
계약자 준수사항	- 납치사건이 확인되는 즉시 보험사에 통지필요 - 친척의 현지 방문은 보험사의 사전 승인 필요 - 현지 방문 관련 제반 비용은 영수증 원본과 함께 청구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 거절 될 수 있음	

g. 출장 수하물관련 비용 담보 (Luggage Coverage)

	보상관련 내용	비 고
담보 내용	- 출장을 위해 휴대중인 물품, 재산 (리스 또는 임대 물건 포함)이나 출장 중에 구입한 선물에 손해발생시 기 약정한 보상금을 지급함. 단 손해가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경우에 한함 - 위 보상 사고발생에 따라 취해진 아래 조치 비용 보상; ▷ 신용카드의 불법 사용을 막기 위한 조치 ▷ 경찰 보고서 제출 ▷ 자동차 열쇠 제작 ▷ 거주지 열쇠 제작	
보상 한도	- 개인 휴대물품 최대 EUR 2,500.-까지 보상 (단, 자기 부담금 EUR 50.- 적용) - 기타 비용 EUR 500.-한도로 보상	
면책 사항	아래 명시한 물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음: - 출장 중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물품, 즉 판매를 목적으로 한 물품이나 판매관련 샘플 - 수집용 우표, 동전 또는 화폐, 귀중 문서	

	• 동물 • 자동차나 트레일러, 수상 보트, 호버 크래프트, 파라 글라이더, 행글라이더 등 이와 유사한 탈 것 • 위 명시한 승용 용구 나 탈것의 부품 아래 명시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음: • 사용상 지장을 주지 않는 피상적/외관적인 손해 • 출장 중 주차된 차에 보관중인 귀중품	
--	--	--

h. 출장 중 지연에 따른 제반 비용 담보 (Delay Coverage)

	보상관련 내용	비 고
담보 내용	• 공무원의 출장 중 교통편의 지연이나 수하물의 지연 도착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보상함 ▷ 출장 목적지에 수하물이 지연 도착하거나 탑승예정 교통편이 3시간 이상 지연되어 발생한 비용을 보상함	
보상 한도	• 교통편 지연에 따른 추가 발생비용: EUR 500.- 한도로 보상 • 수하물의 지연에 따른 대체 구매 비용: EUR 600.- 한도로 보상 • 24시간을 초과하여 지연되는 경우 추가 EUR 600.- 보상	
준수 사항	• 수하물의 도착 전 발생한 비용에 한함 • 지연 입증서류 제출 의무 • 영수증 원본 첨부 의무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 거절 될 수 있음	

i. 출장 중 대인 배상책임 담보 (Personal Liability Coverage)

	보상관련 내용	비 고
담보 내용	• 출장 중 공무원의 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발생한 신체상,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함	
보상 한도	• 신체 및 재산손해를 포함하여 최대 EUR 900,000.- 를 한도로 보상	
기타 사항	• 사고 발생 접수 후 보험사는 계약자를 대신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한다:	



	▷ 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조사 ▷ 당사자와의 직접 협상 ▷ 계약자 (공무원)를 위한 소송을 대리하거나 중재절차 마련 ▷ 소송 혹은 중재와 관련된 비용 지급	
면책 사항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보상되지 않음: • 신체상, 재산상의 손해와 연관이 없는 경제적 손실 • 법에 명시한 정도를 초과하는 손해 • 계약자의 친척에게 끼친 배상책임 손해 • 계약자가 임차, 리스, 수리하던 재산에 발생한 손해 • 계약자 본인의 재산상에 끼친 물적 손해	

6) 국내 보험 상품과의 비교

(보상한도: KRW)

가입유형		국내 상품	공무원CTI
상해	사망	300,000,000	15,000,000
	후유장해	300,000,000	50,000,000
	의료실비	30,000,000	850,000,000
질병	사망	20,000,000	
	의료실비	20,000,000	850,000,000
배상책임 (본인부담금 1 만원)		50,000,000	1,500,000,000
휴대품 손해 (본인부담금 1만원 / CTI: 8만원)		1,000,000	5,200,000
특별비용		20,000,000	
항공기 납치		1,400,000	일반 납치 담보
자연에 따른 비용 손해			3,000,000
납치관련 보상금			55,000,000
정신적 장애 치료 비용			4,300,000
출장 공무원의 교체비용			7,000,000
출장 중단에 따른 비용 담보			7,000,000

(참고: 환율 1,750원/EUR)

3. 맺으며

일반적으로 단체 여행자 상해보험은 그 판매채널이 갖는 특성으로 인해 비교적 낮은 손해율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은 낮은 결과를 보여 왔다.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필자는 여행자 보험의 구매자 특성별로 집단화하는 소위 “고객 분할 (Customer Segmentation)” 과 이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상품 설계와 판매를 주장한 바 있다. 다시 말해서 구매 집단 별 요구사항을 반영한 상품설계를 통해서

- 1) 담보하는 위험 대비 보다 적절하고 효율성 있는 보험료 구성과
- 2) 여행자 및 대행사에게 주어지는 수수료를 낮춤으로써 합리적인 판매 수수료 책정을 아울러 얻을 수 있다고 본다.

그 일례로 유럽에서 판매되고 있는 공무원을 위한 여행자 보험을 소개한 바, 주요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별로 일괄 가입이 이루어져 관리 행정상의 편의를 도모한다. 개개인의 출장, 여행 일정에 맞춰 보험 청약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과 달리 연초에 지방 정부에 의해 1년을 대상으로 포괄 가입이 이루어져 가입 누락의 우려를 없애고 있다.

둘째, 출장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망라하여 다양한 담보를 제공한다. 일반 여행자가 아닌 공무원의 신분상 겪을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하여 공무의 계속 수행을 위해 발생한 비용을 보상한다든지 납치나 기타 사고의 경험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분상 겪충격의 피해를 아울러 보상함으로써 보다 차별화된 위험담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셋째,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반 여행자 보험과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보상한도액을 보이고 있다. 특히 사망이나 후유장애에 따른 일시금 지급보단 출장 중 사고로 인하여 빈번히 발생할 수 치료 비용을 보다 중점적으로 보상한다는 점이 큰 특징이자 장점이라 하겠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을 위해 봉사하는 지방재정공제회와 관련해서 그 역할 모델의 하나로 독일의 공영 보험사와 그들의 공제 상품 중 하나인 공무원을 위한 여행자 (상해) 보험을 다루어 보았다. 공무원 관련 업무의 유사한 특성상 우리나라에서도 도입을 위한 검토가 실무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